

# 하갈과 이스마엘 추방 사건에 대한 농촌목회자의 이해

창16:1~16, 21:8~21을 중심으로

한 철 인 (목사, 강원 춘천 금산교회)

## 1. 머리말

세계적인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열렸고 중동지역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간에 평화회담이 개최되었다. 8·15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정상은 6·15 선언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행, 실천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눈에 보이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중동평화회담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계 인류는 새 천년에는 반드시 한반도와 중동지역에 평화가 정착되어서 전쟁의 불안이 사라지고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긴장관계의 역사적 뿌리가 한반도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로 인한 분단과 전쟁이었다면, 중동지역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민족 사이에 형성된 원한으로 서로 대결하고 있다. 아랍 사

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는 몸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다. 사막의 종자들아, 우리가 이삭의 전통을 이은 진짜 정통이다. 아버지는 같지만 그래도 뭔가가 다르다.” 이렇게 평행선을 이뤄서 오늘까지도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 못하고 영원한 원수같이, 피는 같은데 원수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사건을 창세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으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하갈과 이스마엘 추방 사건 - 본문연구

창세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16장과 21장에 두 번 나온다. 문서설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전승은 J문서인 16장(16:1-16)과 E문서인 21장(21:8-21)인데 여기에 족보적인 성격을 갖는 P문서의 일부(16:1, 3, 15-16)가 삽입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래에게서 출발한다. 그녀는 아직 사라(민족의 어머니)가 아니다. 또 그의 불임은 오랜 것이었다. 사래가 속한 이스라엘 가족구조는 명백하게 가부장적 질서이었다.<sup>1)</sup> 가부장적 고대사회에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가족 안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졌다. 그러기에 불임인 사래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실로 주어 자식을 기대한다. 자식 생산 여부가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믿던 시대(창29:31;창30:22)에 사래는 야훼께서 자신에게 허락지 않은 자식을(16:2)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결심하였다. 여기서 사래의 태도는 고대 동방의 관습과 상당히

1)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p. 49.

비슷하다.<sup>2)</sup>

마침내 소실인 하갈을 통해 임신이 이루어지고 임신으로 인해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하갈과(16:4) 멸시받음을 참지 못하는 사래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난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법률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삶 안에 거의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하갈의 태도변화에 억울함을 느낀 사래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해결을 요구하였고 아브람은 하갈이 사래의 몸종임을 상기시키면서 사래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 결정을 위임한다(16:6).<sup>3)</sup> 하갈은 사래의 ‘합법적인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간다.<sup>4)</sup>

도망가던 하갈은 샘터에서 야훼의 사자를 만난다(16:7) 야훼의 사자(심부름꾼)는 하갈에게 인사한 후 돌아갈 것을 권하고 이어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의 운명을 알려준다(16:11, 12). 야훼께서는 어린 생명을 잉태한 채 도망친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분은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특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하갈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로부터 비롯되는 종족의 번성에 대해서도 전해들었다.

---

2)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nuzi) 문헌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소실로 줄 수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본부인의 친자식으로 간주되었다. 아이를 낳은 여종은 유모로 승격되나, 그녀가 본부인과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면 부인은 여종으로 다시 격하시킬 수는 있었지만 팔지는 못했다.

3) 보통 부인이 혼인 할때 친정에서 몸종을 데려 왔으므로 그 처분권은 부인에게 있었다.

4) 온갖 위험을 무릎쓰고 과감하게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하갈에게 드러나는 강인한 성격은 뒤에 ‘들나귀’ 같은(창16장12절) 이스마엘의 성격과 연결된다. 가나안 지역의 주변 사막에서 아무 숙박도 받지 않고 떠돌아 다니며 생활하는 베두인족의 격렬한 생활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갈은 야훼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풀어 주심에 크게 놀라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엘로이:el roi)이라고 부르며 찬미한다. 그 뒤로 사람들은 하갈이 있었던 샘터를 브엘라하이로이(Beer-Lahai-roi: 나를 돌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고 불렀다(16:14).<sup>5)</sup>

소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람이 자신에게 약속된 후손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때에 하나님은 본 부인 사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약속을 명백히 하신다.<sup>6)</sup> 이와 더불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래도 사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랐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 집안에 기쁨과 더불어 미묘한 긴장관계를 가져왔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창21:8).<sup>7)</sup> 이때 사라는 자기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리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간청한다. 사라의 요구는 이스마엘뿐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기의 어머니 하갈에게 잔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

5)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엘의 탄생소식을 들은 이곳을 매우 중시해 왔는데, 코란에 따르면 현 위치는 메카 근처의 튀르언덕이다.

6)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축복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뿐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불어나게 하시고 그들 역시 크게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7) 고대 셈족의 관습에서 어린이는 보통 태어난지 삼년 후에 젖을 떼며, 이를 축하하는 큰 잔치를 벌렸다.(사무엘상1:23-24) 이는 우리나라 백일이나 돌 잔치와 마찬가지로 유아사망률이 높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를 넘겼음을 축하하는 가족 축제였다.

사라는 자기 아들의 미래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냉혹함을 보인다.

이 일로 괴로와하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분이 이르신 대로 하갈을 내보낸다. 떡과 물 한 가죽부대만을 가지고 내어쫓긴 하갈이 그의 어린 아들과 함께 빈 들을 헤매는 절망의 극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하갈에게 주어진다(21:17-18). 하갈의 눈이 열려 보게 된 샘(21:19)은 광야에 있는 깊은 바위 구멍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거룩한 샘을 주셨으며 그와 함께 해 주셨다. (21: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족의 조상이 되었다.

### 3.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 본문에 대한 재해석

첫째, 전승된 본문을 편집한 주된 관심은,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흔히 이스마엘의 후손과는 분리된 이삭 후손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한다. 이 본문 전승에서 한 민족(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이스마엘 후손 아랍족속)에 대한 우월감과 빼뺏어진 선민의식을 조장하는 근거를 찾아서는 안된다. 비록 주인과 여종이라는 신분의 차이,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는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장자이면서도 상속권을 이을 수 없었던 진정한 배경은 사회적으로 보면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인한 서자 차별을 반영

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한 아브라함과 사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인간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열이나 사회적인 조건은 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삭과 그 후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는데서 알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에게도 내려져 그들도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보편주의와 세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을 살아오다 보니 타민족에 대해 배타성이 강하다. 힘없는 민족으로 힘센 민족의 침략을 오랜 기간 당하다 보니 민족주의를 상당히 좋게 여긴다. 그러나 지나친 민족주의<sup>8)</sup>적 태도는 보편적이고 세계주의적 자세를 잃게 만든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왜곡된 민족주의는 힘센 나라에는 사대주의로, 힘없는 나라에는 근거없는 우월감을 통한 외국인 학대와 차별로 나타난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영호남 동서갈등이나 소지역주의, 가난한 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 등의 사회문제 배후에는 이런 비뚤어진 민족주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문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자식에 대한 여인들의 생존적 갈등모습이나 상속권을 이어갈 아들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자 함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고

---

8) 유럽에서는 민족주의로 인한 비극(2차대전의 히틀러 나치즘)이 있어서인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유럽지식인들에게 느낄 수 있다. 오늘날 대표적인 실례가 게르만 민족주의를 배경으로하는 신나치주의자이다. 그들은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과 배타주의와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들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다.

있다. 아들을 둘러싼 여성의 불행, 그 때문에 야기된 본부인과 소실과의 갈등 및 집안의 분열은 비단 족장시대<sup>9)</sup>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의 역사 안에서 또 주변에서 익히 체험하고 있는 슬픈 인간 현실이다. 사라는 자신이 처하게 될 미래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 정당하게 하갈을 추방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모든 계획과 갈등은 사라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불의, 갈등, 고통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다. 그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주시고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준다.

셋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갈과 같이 아무 죄없이 공동체에서 내쫓긴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인간사회에 있어왔다. 이 옛 이야기는 이해관계에 따른 인간의 비정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내쫓긴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계집종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귀를 기울이며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시키신다. 이스라엘

---

9)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삶과 터전을 마련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 그 자체이다. 두 여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한편은 언제나 약자로 쫓겨나고, 다른 한편은 몸종을 쫓아내고서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질서 속에 속해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라에게는 약속의 아들을,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의 질서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간섭하신다. 자기의 삶과 생존을 위해 도전하고 갈등하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지평을 예비하고 부르신다.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노역을 할 때, 그들 역시 온갖 고통에 시달리던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주셨다. 이 구원의 체험 이후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여 왔다. 하갈 이야기는 이 구원의 체험이 비단 민족공동체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선 모두 내어쫓긴 존재들이다. 실존(existence)이란 말 자체가 ‘밖에(ex) 서있다. (sistere)’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께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 주신다. 참으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고백하며 찬미할 수 있다.

우리 세계에는 실제적으로 죄없이 내어 쫓기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인종우월주의자로 인해 차별받는 소수민족, 정복자에게 자기 땅에서 내쫓긴 원주민들, 세계화를 외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외채와 가난, 식량난과 질병으로 최소한의 생존도 위협당하는 이들, 경직된 공산사회주의 체제와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민중들, 잘살고 힘있는 백성들과 나라들로 인해 환경재앙에 고통받는 제3세계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남북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 비전향장기수,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버려진 아기들과 노인들, 많은 장애인들, 실직자, 농업포기 내지는 천시정책으로 인해 밭더미에서 고통받는 농어민들, 경제구조의 불평등으로 인한 도시 빈민들, 저임금 노동자 등등, 억압과 소외, 고통 속에서 이들의 울부짖음은 높아만 간다. 분명 하나님은 이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넷째, 본문은 고대사회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여성들의 희생과 고난에 찬 삶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사래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는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76세의 고령으로 불임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종 하갈을 통한



씨받이 제안을 하게되었는데, 그 본질이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불신앙으로 여겨지지만 그렇게 만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소위 여성신학관점에서는 오히려 사라나 하갈의 갈등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여성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한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sup>10)</sup> 그런데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성경해석은 아브라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게 하고 사라의 씨받이 제안은 불신앙적 모습으로, 하갈과의 갈등은 부도덕한 여성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철저한 희생자인 하갈은 불신앙의 종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오늘날 노예제와 신분제, 인종차별은 사라져 가고 있는데, 여성차별만은 아득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극복되어야 할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기존사회질서로 자리잡고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는 남북간의 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6.15 남북 정상외교공동선언 이행 사건으로 8.15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경험했다. 50년 만에 만나는 이산가족들은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변한 모습으로 만났다. 그중 재혼한 남편과 수절한 아내와의 만남<sup>11)</sup> 재혼 남편과 재혼 아내와의 극적 상봉<sup>12)</sup>이 있었다. 그

---

10)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삶과 더전을 마련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 그 자체이다. 두 여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한편은 언제나 약자로 쫓겨나고, 다른 한편은 몸종을 쫓아내고서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질서 속에 속해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라에게는 약속의 아들을,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의 질서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간섭하신다. 자기의 삶과 생존을 위해 도전하고 갈등하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지평을 예비하고 부르신다.

11) 8.15 이산가족상봉 방북단 중 이선행(남, 80세), 이송자(여, 81세)씨는 공히 월남자(越南者)로서 이남에서 만나 1968년에 재혼한 관계다. 이번에 이선행씨는 북에 남겨둔 부인(홍경옥, 76세)과 아들 형제(진열, 56세/진성, 51세)를 만났고, 이송자씨는 북에 남겨둔 아들(박의식, 61세)과 상봉하였다. 이선행씨는 북의

러나 부부관계에 있던 이들이 만날 수 없었던 5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부 중에서 남편들의 재혼율이 아내들보다 훨씬 많았다. 사실 50년동안 생사확인도 안 되고 재결합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의 혼란기를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체제는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훨씬 관대한 대접을 받게 하여 남편들의 재혼은 당연시하고 아내들의 재혼은 용납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재혼한 아내에게는 재혼한 남편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50년만의 상봉을 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분단의 조국에서 여성들은 남북 이산의 고통과 함께 가부장사회로 인한 여성차별의 고통까지 짊어지고 5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 “북의 아내가 차라리 내 뺨을 한 대 쳤으면 좋겠어,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혼자 도망쳐서 이렇게 살아왔느냐”라며, 그러면 자신의 죄책감이 훨씬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한겨레신문 2000년 8월 17일자 2면 하단)

- 12) 8.15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서울에 온 북측 사람 중에 하경(남, 74세)씨와 남쪽에 살던 부인 김옥진(여, 78세)씨와 상봉이 있었다. 이번 상봉은 재혼했다는 심적 부담으로 50년전에 헤어진 남편 하경씨의 간절한 상봉 희망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외면했던 부인 김옥진씨의 상봉이 마지막날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씨는“아내가 그간 상봉을 꺼려 몹시 섭섭했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라도 아내가 찾아와줘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하씨는 재혼한 부인 김옥진씨와 5년동안 결혼 생활을 이후 50년동안 헤어져 살았다. 6·25전쟁통에 부인과 세 아들을 남기고 북으로 가 재혼을 한 하씨를 부인 김옥진씨는 10년동안 기다리다 재혼하였다. 이번에 하경씨는 부인외에 아들 3형제와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다.(한겨레신문 2000년 8월 18일자)
- 13) 가부장사회는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들어 불평등한 문화를 조장하려 들고, 도덕, 규범, 학문등 한 사회 문화를 결정하는데 남성 주도이다. 가부장사회는 종교, 신화, 과학을 앞세워 자신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며 피지배층이 스스로 열등하다는데 동의하도록 만든다. 이런 사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영속시키고 강화하기 위

향후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되리라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부장사회에서 누리던 남성들의 기득권이 많이 상실되고, 남,여 성역할도 다양화 되리라. 가부장사회 전통에서 있어온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폭력 문제, 고용에서 남녀차별제도 개선, 취업시 남성에게만 유리한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제기, 호주제 폐지운동, 남성중심의 국적법 시정운동, 유산분배 여자 차별법 시정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만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농촌에서 여성들의 문제는 농촌이 아직도 도시에 비해 더 많이 기존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에 농촌 여성들은 가정에서 농사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른 성서해석을 통해 여성해방을 이루어가도록 농촌교회와 목회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해 차별받는 여성들이 의식의 눈을 뜨지 못하게 교육, 매스미디어, 법등을 동원해 막아낸다. (여성을 위함 모임 지음,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현암사,1992)